

자녀와 함께 생각한다

<24>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는 주부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아이가 2개의 도시락을 가져가는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는 한층 더하다.

“난방도 잘 안된 교실에서 따뜻한 물 한모금없이 식은 밥을 떠넣을 아이 모습을 생각하면 어서 빨리 학교급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형제를 둔 주부 남경우(40·송파구 잠실동)씨의 이런 바람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겉보기에 좋아지고 있다.

또한 급식·비급식학교 1백50개교씩을 대상으로 88~89년 1년사이 4~6학년생의 체위를 비교조사한 결과에서도 급식학교생의 키가 비급식학교생보다 남학생 4mm, 여학생 3mm 더 성장했고, 몸무게 역시 0.35~0.55kg 더 늘었다.

대한영양사회를 비롯한 영양

재 10% 수준인 국민학교 급식률을 도시 50%, 도서벽지·농어촌 70%로 끌어올릴 방침을 확정하고, 우선 내년에는 57억의 예산을 확보해 2백20여개 국민학교에 새로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 또한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쌀소비축진 차원에서 91년부터 국민학교급식을 전면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급식 시설비만도 한 학교 1억원 이상이 드는 등 학교급식 전면 확대까지는 ‘막대한 예산’의 걸림돌이 놓여있다.

따라서 교육세 전용·기업 기부금 허용 등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전면 확대실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도시락

“학교급식 빨리 실시됐으면”

국민학생 아들을 둔 주부 이선영(36·서대문구 아현동)씨는 “부업을 위해 기술학원에 다니면서부터 아침에 도시락을 챙겨줄 여유도 없는 데다 돈을 주려 해도 학교주변에 사먹을 만한 곳이 없어서 급식이 가능한 근처의 학교로 전학시킬까 생각중”이라고 말한다.

20년째 전교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 교동국교 김영삼 교장은 “기대 이상으로 부모들과 아이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나 뛰는 물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질 좋은 영양식공급을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여러차례의 연구조사에서 밝



서울 당산국교 5학년 교실의 즐거운 급식시간.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급식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바람이 높다.

부업있거나 자녀많은 집 대부분 ‘급식제’바라 각 가정에서 점심준비 비용 급식비보다 월등

혀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 실시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식사 후에는 이를 닦는 등 위생관념이 높아졌고, 음식투정·편식·군것질·종지 않은 식사자세 등 식생활습관도 해마다 뚜

전문가들은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학교급식의 전면확대가 절실함을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주장하는 한편 정부에 여러차례 정책 건의를 해놓고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 확대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됨에 따라 주무부서인 문교부는 2000년까지 현

참교육학부모회 최영주 서울지부장은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차등부담을 해서라도 학교급식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부모들의 바람”이라면서 “정부와 학교·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급식확대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애 기자>

취업주부 증가 추세...중·고까지 확대를

큰 아이가 올해 4학년이 돼 학교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한달에 한번씩 학부형들이 당번제로 학교에 가서 배식을 돕고,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보며, 담임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상담도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아이들도 국없는 밥과 마른 반찬을 먹는 대신 따뜻한 국물에 영양이 고른 식단에 맞춰 반찬과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좋아한다.

실제로 요즘은 직업을 갖는 주부가 날로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여서 정부의 예산만 가능하다면 국민학교 전학년은 물론 중·고교에까지 급식을 확대 실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나를 포함한



이 신 애 <주부>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의견이다.

도시락 준비를 위해 각 가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학교에 내는 급식비보다 훨씬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가방과 준비물때문에 때론 도시락조차 놓고 가는 아이들을 대할 때면 그런 생각은 더욱 간절해 진다.

더우기 중·고교생들은 대개 아침을 거르고 둘째 시간이 끝난 뒤 도시락을 먹기 심상하여서 불규칙한 식사와 입시경쟁속의 스트레스로 위장을 해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이웃 어머니들도 걱정을 한다.

우리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때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1만명이 넘는다는 결식 아동들에게 먼저 지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